

26

PAD 파리에 참가하는 가장 젊은 갤러리, 다운타운+



20대의 젊은 갤러리스트 루나 라파노르Luna Laffanour가 운영하는 다운타운+가 지난 4월 개관 1년 만에 문턱 높기로 유명한 디자인 페어 'PAD 파리'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데뷔전의 선정 작가는 최근 별세한 이탈리아 디자이너 가에타노 페세Gaetano Pesce와 그리스 디자이너 테오도르 사이코요스Theodore Psychoyos. 다른 시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두 디자이너는 장난스럽고 반항적인 비전을 공유한다는 공통점으로 의외의 조화를 이뤘다. 컬러와 합성수지를 대담하게 사용하는 가에타노 페세가 1980년에 카시나를 위해 디자인한 테이블 '산소네Sansone' 등을 만날 수 있었다. 산소네 테이블은 에디션마다 형태가 조금씩 달라 대량생산 가구에 반대해온 디자이너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독특함과 불규칙성으로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산업적 완벽성에 저항하는 것. 테오도르 사이코요스의 원시적이고 고풍스러운 작품은 컬러풀한 가에타노 페세의 작품 옆에서 시간, 우연,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인다. 차분하지만 거친 외관이 특징인 돌의 텍스처와 유쾌한 예술 연구의 표본이 어우러진 급진적인 대화는 젊은 갤러리의 비전을 보여주기에 적절했다. 글 양윤정 통신원 담당 최지원 기자

장소 파리 킬리리 정원
사진 Michael Brunn
웹사이트 plusdowntown.com, padesignart.com/en/paris

27

디자인으로 잇는 법률 콘텐츠, 웹 매거진 <로웨이브>



LG전자, 직방, 데스크 등과 브랜드 미디어를 만든 아잠스망이 이번에는 리걸테크 스타트업과 협업했다. 법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엘박스'의 제안으로 온라인 미디어 <로웨이브>를 창간한 것. 판례 검색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엘박스가 변호사들의 지식 공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게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디자인을 맡은 스튜디오 아임레디는 '변호사들의 도서관'을 콘셉트로 웹 매거진을 디자인했다. 도서관 특유의 지적이면서도 클래식한 분위기를 사이트 전반에 반영했고, 오프라인상에서 공부하는 경험을 온라인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하는 데 주력했다. 주요 콘텐츠가 텍스트 중심인 만큼 기사를 매끄럽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의 위계가 잘 드러나는 레이아웃으로 콘텐츠 템플릿을 설계했다. 친근한 느낌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전문 매체의 분위기를 상쇄한다. 글 박종우 기자

클라이언트 엘박스(대표 이진), lbox.kr
프로젝트 매니징 박무진
디자인 스튜디오 아임레디(대표 임이레), imready.work
매체 전략·크리에이티브 디렉팅 아잠스망(대표 최혜진), agencement.kr
콘텐츠 에디팅·발행 최혜진, 김상아, 김수미, 최진수, 박근영

일러스트레이션 스튜디오 클라운(대표 이형수), studiocloun.com
웹 개발 디어스텝(대표 최승혁), deerstep.com
사진 송승훈
론칭 시기 2024년 1월
웹사이트 lawwave.kr